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30일(음력 12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664 호

# “10·27법난 진상 규명을”

## 조계종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윤원호 · 안명옥 의원 입법안 설명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원학 스님)는 1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열고 국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 했다.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 배경과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양당 특별법을 비교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원은 11월 15일 각각 10·27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두 의원은 모두 10.27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정의와 국가의 의무, 보상금,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법난 피해자의 정의를 윤 의원은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신체·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한정한 반면, 안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함께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10·27 법난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안 의원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날 두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은 김봉석 변호사는 “10·27 법난의 정의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에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개인 보상에 집중돼 있지만, 10·27 법난 특별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계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에 따른 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교계의 전통과 맞지 않으므로 보상은 민법에 의한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소속된 종단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법타 스님은 “국방부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참고인과 유관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명백했던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특별법 제정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 부의장)도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1월 28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데 현재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통해 정부와 불교계의 화해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2월중에 처리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우선 소관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 대다수는 조계종단 측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특별 발원법회 등을 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정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불교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측 관계자들.

# ‘불교 공약’ 실천 방안 논의

## 조계종-인수위 실무 간담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불교 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 간담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월 2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공약 실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문화재사찰위원회 위원장 현응(해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김영국 조계종총무원장 특보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측에서는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총괄간사, 주호영 당선자대변인을 비롯해 사회문화교육분과위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유인촌 자문위원, 김재원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식 위원(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교문화를 꽃 피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오늘 의견을 토대로 종교문화 진흥정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맹형규 간사는 “불교의 원융사상으로 인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가 종교적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니, 불교계 현안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당선자의 불교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불교 공약을 중심으로 실행 의견을 정리해 제안하는 자료집을 전달한 후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이 당선자의 불교 공약을 중심으로 불교규제 법령개정과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전통문화 계승발전, 불교문화 세계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통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당선자 공약 사항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이 제안돼, 1월 마지막 주 중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 ‘묵서지편’ 판독순서 바뀌었다”

##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서 최연식 교수 주장

2007년 10월 발표된 ‘묵서지편’ 판독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1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목간학회(회장 주보돈) 정기발표회에서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묵서지편 중 1038년 <서석탑중수형지기> 순서가 잘못 정리돼 문서의 전후관계가 뒤바뀌어 중수기록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복원과정에서 잘못 정리된 문서 편들 순서로 인해 생겼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최 교수는 “결국 본래 하나인 문서가 두개의 문서로 나뉘어 이해됐고 중수 작업 순서도 잘못 이해됐다”고 말했다.

1966년 출토돼 2007년 10월 판독·해서 발표된 ‘묵서지편’은 1024년 <현종15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현종15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 1038년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정종4년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추기>, <정종4년 불국사석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의 4개 문서로 알려져 있었다.

최 교수는 “1038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추기>가 별도가 아닌 하나의 문서다. 이들 문서에 기록된 작업은 같은 시기에 한차례 행해진 중수작업”이라고 말했다.

‘묵서지편’에 기록된 ‘무구정광탑은 다보탑, 서석탑은 석가탑’이라는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학설이 봉안물 관련 기록을 통해 재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다보탑 중수기록이 왜 석가탑에 들어 있었을까?

최 교수는 “석가탑 중수를 위해 14년전 있었던 다보탑 중수기록을 참고하기 위해서 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무구정광탑중수기가 석가탑으로 옮겨졌다는 해석에 따라, <무구정경>도 그랬을 것이라는 유추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발표 후 가진 토론에서 최초 판독자인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무구정광탑을 다보탑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구정경>이 석가탑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석탑을 무구정광탑이라고 인식됐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런 증거를 두고 무구정광탑이 다보탑이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론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학계에 오픈 소스 개념이 이어져 한국목간학회와 같은 불교학 · 서지학 등 학제간 연구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기사 넘쳐 이번호 ‘허허당의 세상만사’는 쉽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헌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100% 순수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사찰메주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황토집에서 띄워 장맛이 좋습니다.
마음 닦으며 수행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수공메주
메주 1말 75,000원
※ 토종 항아리에서 숙성된 장류 및 청국장 안내
된장/막장, 국간장/조림간장, 고추장(보리/찹쌀), 참기름, 들기름, 3회죽염, 9회죽염, 청국장(분말, 환, 말린, 찌개용, 무염)
제조원 : 포항 금강정사 福 복식품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부산 051)514-3566 대전 042)862-5539 울산 052)211-216 강릉 033)644-9009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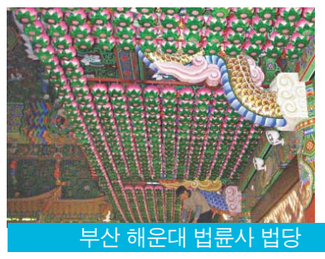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만월등(주름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